

택배포장 중량 줄이기 등 유통업계 포장재 감축 노력 공유한다

- 환경부, 유통산업 순환경제 선도기업 업무협약 중간 공유회 개최
- 참여기업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합포장·무포장 등으로 택배 포장재 감축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택배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유통사업자 등과 추진 중인 ‘유통산업 순환경제 선도기업 업무협약’ 중간 공유회를 7월 30일 코리아나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2024년) 3월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티브이(TV)홈쇼핑, 택배사 등 19개 주요 기업과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스스로 유통 포장재 자원순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업무협약 참여 기업들의 택배 포장재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우수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시상은 대상 1개사, 최우수 2개사, 우수 2개사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이다.

* 대상(컬리), 최우수(쿠팡, 롯데홈쇼핑), 우수(엔에스쇼핑, 한화갤러리아)

수상 기업들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유통 포장재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참여 기업들에게 이를 공유하여 업계 전반에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상을 받는 컬리는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해서 배송하는 합포장을 하고 제품 포장만으로 배송이 가능한 상품(21개 품목)의 경우 추가 택배 포장없이 송장을 붙여 배송하는 무포장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종이로 만든 완충재와 테이프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부자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우수상을 받는 쿠팡은 비닐 포장재의 두께를 약 10% 줄이고 종이박스 중량도 12%를 줄여 택배 포장재를 감량했다. 배송에 쓰는 비닐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을 점차 높이고 다회용 택배박스(프레시백) 사용도 늘리고 있다.

같은 최우수상인 롯데홈쇼핑은 재생용지 택배 상자를 사용하고 테이프도 친수성 접착제를 사용한 종이테이프로 바꿔 자원재활용에 힘써 왔다.

우수상인 엔에스쇼핑은 물로 만든 아이스팩이나 대체냉매제(PMC)를 사용하여 드라이아이스 사용량을 저감했으며, 같은 우수상인 한화갤러리아는 택배상자 규격 2종을 추가(7종→9종)하고 택배송장도 소형화했다.



<합포장>

<무포장>

<다회용 택배>

<상자규격 다양화>

김고용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유통업계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택배 포장기준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통산업 순환경제 선도기업 업무협약 중간 공유회 개최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40)
		담당자	사무관	김태헌	(044-201-7349)

□ 행사 개요

- (時/所) '25. 7. 30.(수) 14:00 ~ 15:20 / 호텔 코리아나 로얄룸
※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5 태평로 1가
- (참여자) 환경부, 업무협약 참여 19개社 임원, 환경공단 등

- ▲ (백화점 5개社)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NC백화점
- ▲ (TV홈쇼핑 7개社) CJ온스타일, 현대, GS SHOP, 롯데, 홈앤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 ▲ (온라인쇼핑몰 3개社) 쿠팡, SSG.COM, 컬리
- ▲ (택배업계 4개社) CJ 대한통운, 한진,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 (주요 내용) 업무협약 이행 감축노력 공유 및 기업 간담회

- (성과 공유) 다회용 택배시스템 구축,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 이행 실적 점검결과 우수 기업 상위 5개사 선정·시상, 우수사례 발표
- (시상 내역) ①대상 1개 기업, ②최우수 2개 기업, ③우수 2개 기업

< 환경부·대규모 유통업체간 업무협약 주요내용 >

- ▲ (일시/장소) '24.3.8(금) 14:00 / LW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 ▲ (참여기관) 환경부(장관), 대규모 유통사업자 및 택배 위탁포장 사업자
- ▲ (협약내용)
 - 유통포장재 폐기물 저감을 위한 일회용 택배의 포장방법.기준 준수 노력
 - 유통포장재 자원순환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노력
 - 다회용 택배서비스, 재생원료 사용 확대, 친환경 부자재 사용, 친환경 유통물류 체계 마련 등 친환경·자원순환 활동 적극 협력